

도, 수출에 구슬땀 흘린 기업인 격려

무역협회와 수출·투자유공의 날 행사... 수출탑 25개사·은탑산업훈장 등 개인포상 8명 전수

전북도는 지난 12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주 그랜드힐스 컨벤션센터에서 유창희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출 유공기관장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시·군 및 수출 유공 기관장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투자 7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 로얄캐닌코리아(유) 등 8개 기업을 2023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로 선정했다.

수출 최우수분야 '로얄캐닌코리아(유)', 해외시장 다변화 분야 (주)대두식품, 처음수출 최우수 분야 한정식품, 농수산물·농수산가공 수출 우수분야 '운봉농협', 수출성장 우수 분야 '케이넷(주)'과 (주)엔트리아이엘리, 벤처기업 수출우수 분야 (주)다시, 내국인 투자우수 분야 (주)제이아이테크 등 8개 사가 선정되는 영예



전북도는 지난 12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주 그랜드힐스 컨벤션센터에서 유창희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출 유공기관장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6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를 안았다. 이외에도 (주)에이치아이앤아이와 성일하이메탈(주)가 1억원 수출탑 케이 넷(주)가 7천만불 수출탑 수상 등 총 25개사가 정부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 개인 포상을 수여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올해 어려운 수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려 표창과 수출탑을 수상하는 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도가 수출기업인 분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도록 노력하며, 최근 유체에 성공한 세계인인비즈니스 대회로 도내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수출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약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70억 달러 대비 12.8%가 감소했다.

글로벌 고급리와 보호무역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지역 분쟁으로 전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건설광산기계와 자동차 수출이 각각 14.8%, 15.3%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13일 전주상에서 전북도지방법무사회와 기업인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인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전주상의,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3일 전주상에서 전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와 기업인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공인의 법률 의식을 향상시키고 생활법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형구 법무사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전라북도 소속 법무사로 구성된 생활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

및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주상공회의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지방법무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우리지역 기업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13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 관계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를 형성한 조직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로서,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 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현장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다.

공사는 노사 간의 긍정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번 인증 평가에서는 노사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활동, 1사 1촌 등 사회공헌 활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사협의 회 실시간 중계 등 선진 노사문화 구현을 위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정호 사장은 "지속적인 노사 간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선진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식품연, 농생명바이오소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전북내 21개 기업들과 연구협력 체계 구축과 기술역량 강화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은 '2023년 농생명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해 13일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전북도내 농생명바이오 관련 기업들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농생명바이오소재 연구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도내 기업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위

한 체계 구축과 기업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생명바이오소재 연구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주관하며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지역에 구축된 혁신

지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기술 지원 △장비활용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농생명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소개, △농생명바이오소재 사업 관련 진행사항 발표, △한국식품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서 수여식과 △참여기관 소개 및 연구협력 순서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애로사항 및 연구협력 내용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농생명바이오소재의 가능성 평가 상품화 관련기술 등 기업의 경쟁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협력체계 구축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 농생명바이오 분야 관련기업과 한국식품연구원 간의 연구협력이 크게 강화되어 앞으로 전북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식품연구원도 꾸준한 노력과 소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은 2023년 농생명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해 13일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전북도내 농생명바이오 관련 기업들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지원체계 강화

도, 전북형 발전체계 조성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

전북도가 13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전주레드바이오산업 발전체계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미래첨단 신산업인 바이오분야에 대한 전북도의 여건, 대응방안,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성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날 용역보고회에는 오택립 도 미래산업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과 도내 연구기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 전북도 여건분석, 전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보고와 제언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레드바이오 분야 국내·외 동향과 전북도의 여건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정부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 서울 바이오허브, 인천



송도 바이오프론티어 등 지자체조성형 바이오클러스터들과의 차별성 등을 모색해 전북형 레드바이오산업 발전체계 조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의생명분야 R&D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레드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생태계는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